

탈북이주여성의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그 이후: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난희**

〈차 례〉

1. 들어가기
2. 연구의 배경
3.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경험 돌아보기
4. 나가기

【국문초록】

본 논문은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참가한 탈북이주여성이 교육 참가 십여 년 이후 당시 어떤 교육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기억하고 있고, 이후 한국사회 생활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참가자 여성들의 기억 구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 이 글은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8073452)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조교수

수집은 참가자 가운데 12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면, 서면, 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참가자 여성들은 북한사회와 대조되는 자유롭고 새로운 한국사회 선거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의 계기를 만들었다. 여성들은 적응의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면서 겪는 고난에서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북한사회에서 내면화한 주체적 인식과 정체성과 통합하여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구축하는 동력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탈북이주여성, 민주시민교육, 북한정치사회화, 선거, 주체화

1. 들어가기

본 논문은 2012년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참가한 탈북이주 여성들이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으며 교육 이후 한국생활 과정에서 어떤 주체적 성장과 변화를 창출해 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대 한국사회는 첨예한 진영 갈등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탈북이주민 커뮤니티의 정치세력화가 활발히 전개되는 한편으로 탈북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정책과 제도가 체계화 되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극심한 경쟁과 반인권적 사회환경의 악화 과정에서 탈북이주민의 대규모 해외 재이주, 부적응, 우울, 자살 등의 현상도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냉전적 분단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분단 이데올로기로 변환-진화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와 같은 모순적 지점에서 출발한다.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참가하였던 탈북이주민 가운데 이후 탈북 단체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계하며 이념적, 정치적 대립과 양극화에 역설적으로 영향을 미친 여성들이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존엄한 존재로서 나에 대한 인권의식을 띄우고 정치적 인식을 함양하여 현실 민주주의제도에서 실천하는 비판적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교육 참가자들이 한국사회의 비민주적이고 진영화된 정치 지형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본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참가자들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이해, 수용하였고, 교육 참가 이후 구체적인 삶의 국면에서 어떻게 자신이 자각한 인식을 접목, 적용해 왔는지, 교육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필자 자신의 관점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바로 십여 년 전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이끈 필자의 민주시민교육 관점에 담긴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편향성이다. 필자의 민주시민교육 관점은 외연과 열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분단 이데올로기(구갑우, 2003: 294)에 포섭된 한국사회 중심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바로 한편으로 교육 참가자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인권의식에 눈을 뜨고, 민주주의 제도로서 나 자신의 한 표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선거와 시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기를 일구는 기쁨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 참가자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다양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통찰하고 비교하며 선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시민다운 삶을 학습할 기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다.

바로 교육 참가자들은 지금 빛나는 실제 상황에 작용하는 모순적 맥락, 바로 탈북이주여성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희생시켜 온 구조적, 문화적 맥락에 담긴 폭력성을 생생하게 자각하고 비판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권리를 내면화 하고 실천하는 비판적 시민으로서 필요, 열망, 판단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A단체 민주시민교육에 참가한 여성들은 충분한 쉼을 즐기며 생생적 의식화의 희열을 누릴 권리가 있다.

본 논문은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자기통합의 서사와 의미부여 과정이 어떻게 참가자들의 내면세계를 치유하고 복원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후 교육 참가자들이 더 힘든 현실과 맞닿았을 때 어떤 영향과 한계가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2.1. 남북사회의 민주주의 관점 차이

남북사회는 헌법과 국호에 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때 그 함의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가 추구해 온 민주주의는 사실상 분단체제를 바탕으로 한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함의하며, 북한사회가 추구해 온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로서의 민주주의를 함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극은 한편으로 북한사회가 크들의 인민민주주의독재가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유족한 물질생활을 마련해 줌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물질생활의 측면에서도 튼튼히 담보해주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간주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인민대중을 지배

하고 기만하기 위한 자본주의사회의 정치형태이며 교묘한 정치적 도구인 부르쥔아 민주주의'(차승주, 2015: 319-320)로 규정함에 서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천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4.19 민주이념'을 근간으로 제시하고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민인식,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반면에,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근본적으로 '당-국가체제인 동시에 수령 중심의 절대권력 체제'(북한이해, 2023: 14)로 간주하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남북사회의 관점 차이는 한국사회 거주 탈북이주민에게 충돌하는 두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북한)와 자유민주주의(남한)이라는 두 관점을 통찰하고 융합할 비판적 민주시민 관점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2.2. 탈북이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동향

개인의 존엄한 인격성을 자율과 책임, 권리와 의무의 근간으로 전제하며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치공동체를 구상한 근대정치체제에서 민주시민은 사회의 존립과 존속에 가장 중요한 정치주체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역사적 정치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비판적 교양인'은 어떻게 출현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비판적 교양인의 원리와 가치로서 '빌둥(bildung)' 개념을 주목하고 빌둥 개념에 근거한 탈북이주민의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며 그

1)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주권적 권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주권적 권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2016: 16)으로 시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 가치와 태도 등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학습적 노력(심성보, 2014: 192)을 의미한다.

기초 작업으로서 기존 탈북이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²⁾

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시기 1996년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발족되고 1997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과정이 본격화 하였다(정하운, 2015: 95-102). 탈북이주민에 대해서는 김대중정부 시기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 세워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탈북이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탈북이주민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는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영역에 포함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학습이 이루어졌다(이탁연·강진웅, 2022: 89; 조인묵·기영화, 2015: 273). 이 조항은 1997년 제정 이후 수십 회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가치는 변화가 나타났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의 통일교육 목표가 2018년 [통일·평화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 깨닫기’, ‘인권, 법치, 복지’ 등의 가치가 추가되고 ‘평화’ 가치가 삭제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가치의 변화 과정 속에

2) 심성보에 의하면, *bildung*으로서 교양교육은 스스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학습자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며, 개인/학습자가 외부세계와의 자발적 논쟁을 통해 자신의 내부로부터 스스로를 형성해 간다는 것을 중시한다(심성보, 2021a: 15; 정기섭, 2021: 351-353; 신난희, 2022: 4 재인용). *bildung* 개념에 관하여 심성보(2021b) 참조.

서 주목할 지점으로 한국사회 시민 다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뿐 아니라 탈북이주민을 민주시민교육 안에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적 타자화 관점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분단체제의 북한 오리엔탈리즘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량을 함양할 주제는 사실상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정착 탈북이주민에 관한 북한 정치사회화 관련 연구(서재진, 2003; 조용관, 2004; 김승철, 2006; 김창희, 2013; 현인애, 2014; 유호열, 2015; 박종민·오현진, 2019) 뿐 아니라 탈북이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신두철, 2011; 신미식, 2011; 김도태, 2012; 박정서, 2012; 정하운, 2012; 유병선, 2012; 2018, 김신희, 2012; 최정은, 2014; 조인물, 2015; 신난희, 2015)와 함께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이 겪는 혼종적 삶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두 연구 흐름의 유기적 통합 관점, 탈북이주민이 북한사회에서 학습한 정치사회화 관점의 인민민주주의 교육과 한국사회의 냉전적 분단체제의 제약 속에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간의 간극과 충돌을 통찰하고 연결할 통합 패러다임으로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시점이라고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 탐구로서 2012년 시행된 민주시민교육 참가 탈북이주여성의 이후 생애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연구 대상 및 연구 과정

본 교육 참가자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A단체의 탈북이주여성 유권자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참가자로 1기(1명), 2기(2명), 3기(3명), 4기(4명), 기타 2명 등 총 12명이다.

1차 인터뷰는 교육 종료 후 만 8년 후인 2021년 7월~2022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A단체 민주시민교육에 참가한 탈북이 주여성들에게 일대일 연락을 하여 본 연구 취지에 공감하며 인터뷰를 수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인터뷰는 필요한 경우 2023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터뷰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면, 전화, 서면, 줌(zoom)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하고, 2번 이상 진행할 경우 줌과 전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줌이나 전화 인터뷰는 전체 녹화, 저장하여 녹취문을 작성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문을 여러 번 읽으며 개인별 대화 주제 영역을 선별 하였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뷰 참가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참가자는 크게 보아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전후로 탈북하여 2000년대 초중반 한국으로 입국한 유형(7명)과, 2000년대 말 북한 화폐개혁 전후에 탈북-이주한 유형(5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입국자의 경우 식량위기를 겪는 가족의 경제지원 등이 탈북의 주요 동기라고 추정된다. 2010년 전후 시기 입국자의 경우는 탈북동기가 좀 더 분화되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갈망, 자녀 교육과 미래 전망 등이 탈북의 주요 동기로 등장하기도 한다. 참가자들의 현재 직업은 고령층의 경우 주부 전업, 혹은 주부생활과 탈북단체 활동의 병행 양상이 보이며, 30대~50대 초반 연령의 참가자들은 스스로 기술직 혹은 전문직 직업으로 이동, 적응에 분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 인터뷰 참가자 소개 및 인터뷰

사례	연령 (입국)	한국입국 (거주기간)	직책	교육	인터뷰 시간 ³⁾
1-가	60 (38)	2002 (22)	노인복지센터장	1기	4
2-가	53 (36)	2006 (17)	노인복지센터장	2기	6
2-나	61 (41)	2004 (20)	영업부장	2기	2
3-가	81 (67)	2009 (14)	교회 집사	3기	4
3-나	83 (69)	2009 (14)	교회 집사	3기	6
3-다	83 (58)	1998 (25)	탈북단체 고문	3기	4
4-가	60 (45)	2008 (15)	탈북지원단체 회원	4기	4
4-나	57 (42)	2008 (15)	탈북단체 여성부장	4기	4
4-다	45 (25?)	2004? (20?)	대리	4기	2
4-라	60 (43)	2006 (17)	탈북단체 총무	4기	2
기타-가	40 (26)	2009 (14)	간호사	무	4
기타-나	52 (33)	2003 (19)	농업인	무	2

3) 1회 평균 2시간 진행

3.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경험 돌아보기

3.1.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A단체의 탈북이주여성 유권자 중심 민주시민교육은 여성의 권리와 역할, 여성운동, 선거제도 이해와 투표참여 독려를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무부의 북한인권법 북한민주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주차별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A단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주	주제	내용
1	여성 정치 참여의 역사	* 여성의 리더십과 정치 참여 역사 * 여성시민운동 *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기반
2	민주주의와 선거, 유권자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와 자아 이해 * 민주주의의 전제 * 남북한 선거의 차이와 유권자의 의미
3	한국과 외국의 정당과 정책 기초	* 민주주의와 정치 * 한반도의 특수성과 보수/진보 * 대한민국 정치사와 정당 정치
4	영화 속 민주주의의ダイナ믹	* 이장과 군수 시청 * 조별 토의 및 발표
5	유권자와 대중매체	* 북한지원활동 * 여론의 두 방향과 선거 * 공약과 부정선거
6	유권자들이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 어떻게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 자신과 타인의 느낌 이해하기 * 소통하기 워크숍
7	워크숍	* 단양팔경 * 온천 * 월남민 마을(아바이마을) * 고양 꽃박람회 유* 탈북민 강사 강연회

3.2. 민주시민교육 경험 돌아보기

십여 년이 지난 후 만난 교육 참가자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기억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억하지 못하거나 막연히 기억하고, 다른 유사 교육과 혼동하여 기억하는 모습도 보였다. 교육 당시 30대~40대에 속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혹은 그 이후 교육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해 온 참가자들이 당시 교육에 관하여 명료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다.

3.2.1.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같이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1-가의 경우는 교육이 있었다는 것 외에 더 기억하는 것이 없었다. 반면, 현재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가의 경우는 당시 교육 내용에 대하여 대단히 명료하게 기억하였다. 2-가에게 강하게 각인된 부분은 자신이 투표권을 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유권자라는 말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인상이 강했어요. 이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유권자라고 하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유권자고 우리 투표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때 교회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어요. (2-가)

그때 강의 중에서 두 분 강사 서 있던 모습이 지금 생생하게 나는데 키가 자그마하고 당시에 공감되길래 그분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4-나)

당시 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은 탈북이주민 스타일에서 보면 재

미있는 교육은 아니었다. 강사들도 탈북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참가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한 교육 과정은 영화 나눔이었다.

한 주차 진행한 영화 관련 내용을 분명하게 회상하며 참가자들은 아주 즐거워하였다. 이론과 설명 위주의 강의가 많았던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래서 (가기는 해도) 싫어했던 참가자가 꽤 많았던 것으로 이들은 기억했다.

이들이 감명 깊어 하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강사들이 사람들을 ‘설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내용이었다. 왜 선거에 관한 기억이 이렇게 강하게 각인되었을까?

그때 당시에 선거가 가까워서 한국에서의 선거 인식을 심어준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4-나)

투표권에 대한 강의를 있었어요.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를 해야 민주시민으로 자격이 있다고. (4-다)

투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도 누군가를 누구의 구에 받음이 없이 누가 나한테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가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고 내가 투표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라는 거. 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2-가)

당시 한국거주 기간이 5년 전후인 참가자가 7명 정도이고, 10년 전후인 참가자가 5명 정도였다. 4-나는 아직 한국사회 적응 초기에 해당되는 경우로 북한과 대비되는 선거 관련 사항이 새롭게 느껴졌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십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참가자들에게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한국생활을 해온 4-다의 경우에는 투표권의 의미, 민주주의, 투표 등에 관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 좀 더 예리하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된다,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판단과 결정의 자유로운 주체 인식은 이들에게 깊은 자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기억 반응에 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에서 인민을 대상으로 어떤 정치사회화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3.2.2. 북에서의 정치사회화 기억과 경험

교육 참가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정치에 대해 몰랐고 반항을 하는 것 없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다고 구술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사회에서 이들이 경험한 선거 관련 집체적 활동을 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국사회에서 회상하는 북한에서의 선거 관련 경험에는 여전히 고유한 흥겨움과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새로움과 신선한 인상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라는 전혀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정치를 잘 몰랐어요. 그냥 학교 졸업할 때까지 김일성, 김정일 역사에 대해 공부했다.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의 정치에 반항도 없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살았어요. 국가적 공휴일에는 공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다양하게 문화 활동을 즐겨요. 북한 정치사회화는 독재정권으로서 특수성이 있어요. (4-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개인의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세계 있잖아. 이런 세계를 가장 먼저 없앴대. 북한도 마찬가지야. 개인의 감성은 허용이 안되지. 그냥 전체를 위하는 어떤 사람을 기계처럼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에 불과하지. 하나의 부속품으로. 그냥 흥미나 감성적 요소를 넣어가지고 국가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야. (기타-나)

특히 기타-나는 북한에서의 집체적 활동이 일으키는 즐거움과 흥겨움을 좀 더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다. 철저히 개인의 감성 세계와 유리된 집체적 감성 경험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필요, 정서, 욕망이 생생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선거 과정은 북한사회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내용으로서 매우 흥미롭고 새롭게 각인되었다고 보인다.

3.2.3. 선거 및 투표 경험

북한의 투표는 특별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래요. 여기는 당이 여러 개라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사람마다 투표권이 있는 게 기억이 나요. 여성인권에 관해서도 배운 거 같고 근대여성 관련 사실 등요. 시민교육을 받기 전에는 선거에 대해 잘 몰랐어요. 선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원에서 투표에 관련된 교육은 없었어요. 처음 와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4-다)

북한에서 선거와는 완전 다른 한국에서의 선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새로웠어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선거에 참가해야 된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정신이지만 여기는 자유주의적인 정신이잖아요. 북한에서의 선거 날은 진짜 완전 최대 명절처럼 이렇게 하고 길에서도 다 한복을 입고 그날에는 진짜 한복을 입고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선거장에는 완전히 들쭉여요. 선거철이면 새벽 한 5시 때 학교 나가서 뭉땅 모여요. 고수를 다 들고 도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구호도 선거에 참가하자고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하고 구호를 부르며 행진을 하는 거예요.

요. (4-나)

4-나의 경우 북한의 선거 풍경에 관한 기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4-나가 회상하는 북한에서의 생활 풍경은 부정적이지 않으며 한국의 투표 풍경 경험이 일으키는 정서를 이와 양립 불가능한, 혹은 대립적인 정서로 말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나는 남과 북 사회 풍경을 대립적이기 보다 적응을 위한 조건으로서 ‘예술적으로’ 통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4-다가 선거 관련 교육 과정을 세밀하게 기억한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상대적으로 북에서의 경험 기간이 적은 4-다의 경우, 한국사회가 제공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 정보와 생활양식은 매우 흥미롭고 인식의 지평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인다. 선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후보자를 개인이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지고 집체적인 동원이 아니라 자유스럽고 일상적인 선거 풍경은 이들에게 매우 놀라운 것이었으며 이러한 새로움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함께 한 교육 내용은 십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들에게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3.2.4. 후보자 선택의 갈등

2010년대 한국 정치지형에서 진영화 경향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고 탈북이주민 커뮤니티 안에서 이와 관련된 경향성은 분명히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A단체 교육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지향과 정책에 관한 비판적 분별과 선택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교육이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강 강사들도 A단체 교육과정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였을 뿐, 교육장으로 이 이슈를 가져와 논쟁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한나라당이 북한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라당을 좋아했어. 더 좋은 마음이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다음에는 누구 뽑았는지 생각 안나. 선거 안했던 거 같아. (3-가)

정치적으로 솔직히 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시사 토론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서로 후보는 어떻게 좋은 후보는 어떻게 그러는 게. (기타-가)

한국사람 중에도 대통령 보고 종북 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 여기는 아무도 안다고 말하잖아. 우리 북한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나 여기 와서 문제인이 흥남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말이야. (3-나)

참가자들은 후보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관하여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자신이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자가 어려움을 겪거나 비판을 받는 언사를 당하는 것을 불편하고 좋지 않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의견이 갈리어 격렬하게 토론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습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한국 현실에 양가적 감정을 담아 말하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투표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었고 실제로 투표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 후보자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충분히 다루어보지 못하면서 사실상 한국사회 현실에서 참여하게 전개되는 극단적인 진영 갈등, 양극화된 정치적 분열양상에 관한 깊은 이해를 축적하지 못한 채 선거에 내몰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양상이 일으키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참여하게 갈등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별할 것인지를 다루어보지 못한 채 한국 현실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A단체의 민주시민 교육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 이슈의 회피 한계는 이로 인한 고민과 혼란을 참가자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온전히 스스로 경험하도록 내몰았다고 할 수 있다.

4. 민주시민교육 경험 그 이후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있을 당시에 1-가는 예술단체 운영자로, 2-가, 3-나, 기타-가, 기타-나는 학생으로 3-나, 4-나 라는 탈북단체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었다. 2-나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참가자가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교육 참가 이후 이들이 살아온 십여 년 동안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였다. 한국사회 정착 10여년을 넘어서는 전환의 시기에 적응의 차원을 넘어 이주지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토착민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겪은 도전과 좌절, 실패와 회복의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2023년 현재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교육 참가 당시보다 사회적으로 좀 더 기반을 갖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관한 통찰력, 사회관계 등 사회자본의 축적, 전문 부동산 업계 종사자이며 농업인으로 또한 노인복지센터 장으로서 독자적인 자리를 상대적으로 구축하였다. 힘들지만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이들이 이와 같은 현재를 구축하는 역량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4.1. 한국사회에서 살아오며 겪은 어려움

교육 참가자들이 민주시민교육과 만난 시점은 대부분 이들이 한국에 온 지 5-6년에서 십 년 내외의 시기 이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밑바닥 허드렛일’, ‘값없는 일’을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하면서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이후 참가자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은 상대적으로 초기 정

작 기간보다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출신이라는 이들의 이력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변화 속도를 감당하기에 사회 기반의 취약함과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랑하고 같이 그렇게 뛰고 ... 신경을 쓰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아 이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정을 잘 안주더라고요,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건축을 할 줄 안다 안민어. 인테리어로 한 다 하면 얼마나 하겠어. 돈을 이렇게 딱 내놓으면서 깎아 달래요. (2-나)

뒹어놓고 빨갱이라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힘들긴 해요. 그런 사람의 좁은 소견이라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집값이 오르는 게 제일 속상해요. 어떻게 집을 살 수도 없고 1년에 1억을 어떻게 모으냐. 집 한 번 사려면 죽을 때까지 모아서도 못사는 집이 되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하고 이렇게 여유 있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거 말고 관심이 안가요. 당장 출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희망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4-다)

참가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북한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안정감과 연대감,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일으키는 내적 궁지, 자기 효능감, 사회적 기여의 기쁨 등이 사라짐에서 오는 무력감, 비통함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들이 겪은 약한 사회적 소속감, 고립과 하향 계층화의 고통,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무너진 궁지와 자기 효능감을 재생할 새로운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국 사람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성원의식과 연대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2. 북한에서 배운 가치관, 문화, 생활양식의 변화

교육 참가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북한에서 배운 가치관, 문화, 생활양식과 다른 세계로서 한국사회에 눈을 뜨고 이해하는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북한사회에서 갖고 있던 가치관을 새로운 차원에서 재발견하고 자기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토대로 전환하는 촉진제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는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민주시민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내 운명을 결정하려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옳은 선택을 하든 나쁜 선택을 하든 책임은 내가 지겠지만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요. (4-다)

교육 참가자들이 한국사회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토대 원리에는 여전히 북한사회에서 형성한 사유양식과 문화세계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정체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요소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생존을 위하여 이미 축적한 과거 사회의 조건과 요소를 여전히 활용, 재생하며 현재 세계에서의 생존 그물망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사회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정진해야 한다는 갈망을 품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 참가자들이 북한사회에서 내면화한 사유양식과 문화세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부분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이 여정에서 북한사회에서 형성한 원리와 세계관을 새로운 사회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신선한 기본 원리로서 작용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3. 교육 후 변화한 점

한국사회 생활이 상대적으로 오래지 않았던 교육 참가자들이 당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속속들이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은 흥미롭고 새로운 자극과 전환의 풍경을 제공하였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던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면모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통찰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해요.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얻어져 왔는지 제대로 모른 채 혜택만 받고 살아왔어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한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인 투표에 참여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오래 가려면 나 같은 사람도 나서서 투표를 하고 작은 소리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4-다)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에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은 다수의 참가자들이 안보 관점의 정치진영에 친화감을 갖고 동질적 감성을 느끼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항적 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권력 지형에 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모임과 교육에 참가하고, 시민으로 주권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한다. 이들은 마음 안에 흐르는 감정으로 ‘감사함’을 거듭 말하고 있다. 시민으로서 남과 북을 분열과 대립 관계로서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연결과 협력 관계로 지향하며 자기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나이 제한이 없어 어르신, 젊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교육을 받았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노인, 젊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강의를 해주러 오시는 강사분에게 감사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인데 겸손하고 정중하게 북한이탈주민을 대해주었어요. 궁금한 거 물어봐도 수준의 상중하를 따지지 않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셔서 역시 성공하신 분들은 인품이 다르구나 하고 느꼈어요. 진행자 선생님에게도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고 반겨주고 어르신들의 얘기도 싫은 내색 한번 안하고 다 받아주고 들어주어 너무 감사해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작은 부분에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학업에 열중하고, 가정에 충실히 임하고, 아이들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 학업과 봉사활동,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부모로서 뒷받침 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자로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사회의 작은 구멍을 메워가고 있어요. (4-다)

5. 나가기

본 논문은 한국사회 진입 십여 년 내외의 탈북이주여성들이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참가한 지 십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어떤 교육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기억하고 있고, 이후 한국사회 생활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참가자 여성들의 기억 구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 1) 탈북이주여성은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참가자 여성들은 교육 당시 한국사회 정착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으며 적응 초기의 혼란스러움을 넘어 토착민으로의 전환을 실험하는 전환기적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경험

은 탈북이주과정에서 해체된 사유양식과 문화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원리로서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세계를 제공하였다. 특히 개인적이고 자유로우며 일상적인 선택과 거부의 허용으로 투표권은 개인으로서의 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선거제도와 시민의 권리에 관한 한국사회의 논리와 경험을 새로움과 신선한 지평으로 발견하면서도 북한사회의 논리와 경험에 대한 회상과 인식에는 다양한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북사회의 원리를 대립적이고 충돌하는 것으로만 간주하기보다 고유한 정서세계를 담은 독자적 기억으로 향유하면서 현재 사회에 적응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층적 기억 구조를 보여준다.

2)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참가 여성들의 인권의식 생성과 정치적 인식 개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참가자 여성들의 탈북-이주 과정은 경제적 고통과 비참함을 수반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으로 누리는 소속감과 연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수행이 일으키는 내적 궁지와 자기 효능감 등 사회정치적 존재성의 해체의 고통 또한 대단히 깊었다.

민주시민교육은 긴급하고 혼란스러웠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돌보지 못하였던 사회정치적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생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전환적 사유양식과 문화세계 원리로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 한 차원 도약하는 전환적 출발 지점에서 한국사회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에서 내면화한 주체적 인식과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해가는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탈북이주여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앞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된다. 바로 북한사회에서 내면화한 지식과 관점을 오늘의 시점에서 탈북이주여성 스스로 그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업은 남북사회를 모두 경험하며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아온 탈북이주여성들의 생존 경험을 상호 갈등과 대립, 충돌과 배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한 개인의 삶 안에서 다양성의 관점으로 유기적 조율과 통합을 탐구하고 새로운 가치체계와 문화세계를 구축해 갈 민주시민교육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2018 통일교육·평화교육 방향과 관점』,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이해』, 국립통일교육원.

2. 논문

- 김도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 내용과 문제점」,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제29집 제2권, pp.51-68.
 김승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서 북한 정치사회화의 영향 연구」, 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신희,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창희,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동북아논총』제18집 제2권, 2013, pp.123-144.
 박정서, 「정치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탈북자 시민성 연구와 시민교육에의 함의」, 한국사회과학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제51집 제2권, 2012,

- pp.89-105.
- 박종민·오현진, 「북한에서의 유교적 정치사회화의 영향: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제53권 제5호, 2019, pp.131-153.
- 송상윤,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손수진, 「북한이탈주민 목표의식과 민주시민교육」,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통일대비 남북한 주민대상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2016.
- 신난희, 「이주민을 위한 시민교육이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제54집 제2권, 2015, pp.47-69.
- 신난희, 「코로나19시기 인류학 강좌로서 비대면 다문화 교양 수업의 설계와 실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제11권 제1호, 2022, pp.1-25.
- 신두철,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제24집 제2권, 2011, pp.97-113.
- 신미식, 「새터민의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 역할」,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서석사회과학논총』제4집 제2권, 2011, pp.79-107.
- 심성보,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2014.
- 심성보,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교육의 새로운 철학 모색」,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21년 추계학술발표회』, 2021a, pp.1-33.
- 심성보, 「인간성 함양과 시민적 역량의 창조: 마사 누스바움의 논의를 중심으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미주피아 전문가 고급과정 자료집』, 2021b, pp.49-81.
- 유병선,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제13집 제1권, 2012, pp.87-100.
- 유병선, 「통일대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제8집 제2권, 2018, pp.65-81.
- 유호열, 「탈북민 의식을 통해 본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징」,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제15집 제3호, 2015, pp.221-253.
- 이택연·강진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교육학회, 『통일교육연구』제19집 제1호, 2022, pp.191-217.
- 정기섭, 『독일의 학교교육』, 살림터, 2021.
- 조인묵,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 분석」,

-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조인묵·기영화,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회보』제19집 제1권, 2015, pp.271-293.
-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 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5집 제2권, 2004, pp. 155-184.
- 차승주, 「‘민주주의’에 대한 남북한 인식 비교」,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제50집, 2015, pp.305-333.
- 최정은, 「탈북여성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현인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서재진,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 통일연구원, 2003.

(투고일: 2023. 8. 22 심사완료일: 2023. 9. 22 게재확정일: 2023. 9. 25)

신난희
소속: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조교수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성 토마스모여관 209호
전자우편: peace2018@cu.ac.kr

[Abstract]

North Korean Migrant Women's Experie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reafter:
Focusing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articipants from Group A

Shin, Nan-Hee

This thesis is about what North Korean 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group A remember what kind of education content they remembered in connection with their lives after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 for more than ten years, and how it influenced the course of life in Korean society afterwards. We looked at it based on dicta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face-to-face, written, and zoom, targeting 12 participants.

The female participants were deeply impressed by the free and new election process in South Korea, which contrasts with North Korean society, and created a new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Korean society through the education process. In the hardships women go through while pursuing a new leap of adaptation, rather, they show how to create a driving force to build a new self-identity by integrat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acquired in South Korean society with the independent perception and identity internalized in North Korean society.

Key words: North Korean migrant wome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election, Subjectivity